

## 제77회 제1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2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2일 하오 12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응표

5. 출석의원

재석 16명 전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제76회 회의록 통과

2. 감사문 발송 상황보고(대 체신부장관)

3.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상황보고

나. 부의안건

1. 단기 4290년도 제6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건축택 특, 국민주택 특)

4. 년도 내 일시 차입의 건

5. 목포시 오물제거 수수료 조례 개정안

6.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7.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신설 국민학교 부지 취득의 건

8. 토의사항

※ 제76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감사문 발송상황보고

서기 박찬대 결과보고

※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상황보고

◇명 남 철 의원

- 정지비의 정확한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심의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문사위원회로서는 일응 교육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의를 보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부의안건

◇명 남 철 의원

- 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신설 국민학교 부지 취득의 건

◇천 철 수 의원

- 문교사회분과위원회의 결의대로 본 건 교육위원회에 회송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정지비 명세서가 첨부 안되었다 하여 비트 한다는 것은 그이유가 박약하다고 보아집니다.
- 교육위원회로서도 이 안이 최종적인 안이 될 것이니 문사위원회로서 이 안 외에 대안이 있는 것인가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겸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김 성 균 의원

- 김경인 의원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나 그 정지비의 정확한 계산액이라도 안 연후에 문사위로서 그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재심요구를 하기 위하여 비트 시킬 것이 아니라 금차 회기 중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제반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차 보류하여 둘 것을 개의 재청...삼청

◇강 영 락 의원

- 김경인 의원의 개의에 찬성발언

◇김 창 희 의원

- 죽교 4구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북교 국민학교 보건장이 과거에는 광대하다 하였지 마는 현실은 어떠한가 주차의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는 시민 공청대회라 개최하여 널리 시민의 여론에 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며 차라리 부지가 없으면 사범부속교 근방을 택할 망정 아동의 위험성 있는 죽교 4구는 반대하는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4, 5년 후 사태로는 죽교4구가 적당하다할지는 모르나 현지 실정으로는 부당한 것이다. 유달 국민학교의 교실 완화책이 급선무인 것이다.

◇김 일 섭 의원

- 본 건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와 개의에 대한 표결실시 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7표 부결

◇김 경 인 의원

- 기존시설의 증축이 급선무라 하나, 문교당국의 방침은 1교 18교실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거금 수년 내에 광주시나 타 도시는 신설교가 급증한다는데 반하여 당시는 무엇을 하였는가 신설교의 신축은 작금의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3년 전부터의 현안이 아니겠는가 신설교의 부지선정은 교육위원회로서도 심사숙고하여 결정지을 문제인 것이나 부당하다하면 행동이나 서산동 근방의 대안도 수립하여야 될 것이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죽교 4구가 최적지로 인정되는 바이다.

김창희 의원의 공청대회 문제에 있어도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제안한바 있었거니와 본 건 토론의 여유를 가지도록 주장하는 바이다.

◇강 영 락 의원

- 본 건의 귀결은 신중성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당지의 기후 등 제조건으로 죽교 4구로 결정 진다 하여도 아동등에 대한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며 사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 측에 의사를 존중키로 하여 김경인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바이

다.

◇하 동 현 시장

- 교육위원회 의장의 입장으로 발언하려 한다. 신설 국민학교의 신축을 당시 아동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가 부득이한 일인 것입니다.

본인 타용무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는 첫째, 교육위원회로써 제1, 2, 3, 4의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성 있고 치밀한 구상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할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경솔한 처사를 하였다고 생각되는 바이며

둘째, 도축의 기술자가 부지의 적부적의 말도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로 하여도 매년, 도의 배세액 그대로를 받아드려 시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부과한 예는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결론은 교육위원회와 우리의회에서 본 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요는 유달학교 교실 완화문제가 급선무인바 참고로 말하니 죽교 4구로 부지를 결정하면 부지정지비로 당장에 3.000만 환이 소요되는 것이나, 나달수씨 대지를 구입한다면 3.200만 환이 소요되는 것이나 나달수씨 대지를 구입한다면 3.200만 환만 들면 6개의 가교실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고 명년부터도 수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삼 성 의원

- 부지선정문제에 있어서는 후보지로 나달수씨 대지, 차남 하씨 대지 죽교 4구의 3개소이나 각 학교의 학구조절 문제, 입지적조건과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죽교 4구동을 선정한다는 것 같으나 각 후보지의 기초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태만한 처사를 하였다고 보아지니 이 기회에 집행부의 정신을 환기시키는 결과에서 천철수 의원의 동의와 같이 일응 집행부에 회송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상 대 의원

- 찬성발언

◇김 일 섭 의원

- 나달수씨 대지를 구입한 경우 부대공사비 산출기초 설명(상세 생략)

◇김 경 인 의원

- 교육위원회 측의 사무태만 등 이제야 깨달았다.

김삼성 의장의 발언과 같이 일응 본 건 비트할 것을 찬성하며 본 의원의  
개의를 철회한다. 천철수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사회 정 응 표 부의장

- 산회선언 하오 12시 2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임함

단기 4290년 12월 4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77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16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16일 하오 1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천철수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제77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감사문 발송상황보고(대 교통부장관)

나. 부의안건

1. 신년도 시정방침 연설(시장)

2. 동질의 응답

3. 제9회 시정감사 결과보고(본 청 및 각 사업장, 각 동)

## 8. 토의사항

※ 제77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감사문 발송상황보고

서기 박찬대 결과보고

※ 신년도 시정방침 연술

※ 동, 질의응답

###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초대의회 의장 박찬규씨께서는 항시 우리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나 오늘은 우리 의회를 참관 차 방청석에 나오신 모양이니 의회의 인사차 의장 내에 특별석을 만들어 모시도록 할 것을 긴급동의  
만장일치 가결

### ◇김 상 대 의원

- 시장님의 시정방침 연술은 잘 들었으며 신년도 예산안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세출면은 억제할 대로 억제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나 특별판공비 60만환 계상은 거대한 대사업을 앞두고 우려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반면 세입면을 보면 너무 소홀한 감이 있다고 보아 지는 것이다. 즉 사업장 수입이 도장 가축시장, 도선장 등 금년춘계부터 실지 현장조사도 하여보았지만 너무 근소한 액을 계상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증가 의사는 없는가 둘째, 과년도 수입을 350여만 환 계상 하였으나 징세 가능은 몇%나 보았는가 설명을 요구한다.



셋째, 건설과 관계 설계 수수료를 당해 조례 재정을 보아 인상시킬 용의는 없는가

넷째, 보조금 800여만 환 감은 어떠한 이유에 기인한 것인가

다섯째, 4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가 부진하다. 신년도에는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란다.

여섯째, 인분 매각대 징수방법이 소홀한 것 같다.

#### ◇김 남 진 의원

- 오늘 시장님의 시정 연설을 듣고 급작 이에 대한 질의 응답한 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보아지니 금일 중으로 시장 시정연설을 등사 배부하여 주도록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 시정감사보고부터 끝내도록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중 만장일치 가결

#### ◇김 삼 성 의장

- 20분간 휴회선언 11시 40분 현재

#### ◇김 삼 성 의장

- 속개 선언

#### ※ 제9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 ◇(제 1반) 강 영 락 의원 보고

시정계 : 대체로 양호하다.

관재계 : 가옥 대지임대료 등 징수사무가 부진하다고 보나 내용을 검토한바 징수에 애로였음을 발견하였다. 시유재산도 거개 매각 처분하게 되었으니 축소시키면 되리라고 보아진다.

지도계 : 양호하다. 한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선거인명부에 무인 압날을 가급적 피하고 실인 사용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란다.

회계계 : 복잡한 사무가 치밀히 잘 되었다.

요망하고 싶은 것은 서류중심을 피하고 시전체적인 재정현황을 검토하여 지

출사무에 이하여 할 지며 둘째, 제찬조금이 너무 과다히 지출된 감이 있으니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가로수 문제인데 묘목의 선택이 나쁘다고 보아지니 이후 이점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

병사계 : 대체로 양호하다.

호적계 : 문영호씨 호적관계에 대하여 물의가 있는데 민원서류라 하여 속결주의로 처리하여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단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떠한 정실 관계는 개재 안되었고 보는 바이다.

시립병원, 대성병원 : 현금 추진중에 있는 격리병사의 서광 있음을 전제하고 감사에 당하였으나 세입면이 너무 빈약함을 느꼈고 사무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보아진다.

도살장 : 건물이 노후되어 조속한 시일 내 수축을 보아야 되겠으며 환경정리가 극히 불량하였다.

#### ◇(제 2반) 김 상 태 의원 보고

- 부과·징수·정리계 :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각 사업(연동공시, 남교동 공시, 2시장)의 사용료 수입을 수개월식 체불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월 평균 200만 환정도의 수입을 보는 공동사양장을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용당도선장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일부 유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보건계 : 각동에 배부한 주정이 수불장부가 전무하였으며 3월중에 배부한 약품의 수불대장에 차이가 있었다.

노동계 : 극히 양호하였다.

용당 도선장 : 매표에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도선장 근방이 모타선취체가 긴급히 요청된다.

청소사무소 : 극히 양호하다.

#### ◇이 정 권 의원 보충보고

- 사회계 : 군경원호금 부정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사직의 손을 거쳐 밝혀진 바 있거니와 이에 의하면 관련자가 2인이며 피해액이 69만으로 되어있으나 느낀바 있어 법원에 보관중인 관계서류를 빌려 조사하였던 바 이에 대한 관련자가 4, 5인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상상외로 엉망진창인 것이다. (피해액 400여만 환)

여별지

◇김 창 희 의원 보충보고

- 보건계 : 빙설허가 첨부서류에 시립병원 측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심산부인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있는 것을 허기한 건도 있어 의아스럽다.

용당 도선장 : 유류수불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고 유류보관 창고가 없어서 개인 창고를 이용하는 관계로 그 정량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웠다.

◇(제 3반) 김 상 대 의원 보고

확장계 : 상수도 공사비 1억 5천여만 원을 금년에 완전 소비하여야 할 것인데 여하히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학교 흡관 적재장에 감시원배치가 시급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도시계 : 문서정비가 지극히 불량하다

측량수수료 및 설계 수수료를 조례개정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관리계 : 문서정리는 양호하였다. 수도사용료의 완징을 촉구한다.

과원상호간 인화결여가 있음을 목격하였다.

농림계 : 문서정비가 지극히 불량하였다.

상공계 : 각시장의 사용료 미징액이 상당액에 달하는데 년도 말을 수일 후에 앞두고 여하히 징수할 것인지 특단 노력하여주기 요망한다.

축정계 : 도살장건물이 노후하여 시급한 보수를 요하오며 간이도장 1개소 설치를 절실히 요청된다.

◇김 성 균 의원 보충보고

건설과 : 인화가 결여되어 확장계는 독립된 감을 주고 있었다.

송수관 및 배수관의 누수방지공사를 촉진하여야 하며 수도사용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주기 바란다.

산업계 : 김상대 의원 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음

끝으로 목하 각동은, 공채소화 추곡독려 및 각 보고문서 등 산적하겠는데 각 동장이 동정감사결과보고 청취차 방정석에 출석하여 있으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후반기 시정감사보고도 계속 실시하도록 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제9회 시정 감사 후반기 실시 결과보고

◇(제 1반) 김 성 균 의원 보고

- 용당동 : 직원의 봉급을 9월 분부터 식량은 8월 분부터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40여만환의 현금이 필요할 것이니 시급 재정보고를 하여야 되겠다고 본다. 그리고 용당동은 산업 사무 담당 전임 직원의 증원할 것을 요청한다.

산정1구동 : 당 동역시 6월분 식량부터 미비한 실정이다.

대여양곡의 조속한 시일 내 회수를 촉구하며 직원의 증치 필요를 느꼈다. 끝으로 시 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동 직원의 인사문제는 반드시 당해 동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단행하기 바라며 시, 동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반 운영에 가일층 치중하여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보고

- 호남동 : 제반 사무처리가 지극히 양호하였고 어느 동보다도 모범동으로 평가하고 싶었다.

◇(제 2반) 박 두 순 의원 보고

- 제2조에서 10개동을 감사하였던 바 대체로 무안동과 대성1구동은 양호하였으나 동명동과 대성1구동은 회계직원의 사무 미숙으로 기인하는 장부정리 등이 지극히 불량하였다. 그리고 죽교4구동에서는 징수직원이 1개월이나 공금 유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김 상 태 의원 보충보고

- 남교동 : 항목 없이 4만 2천환 가량을 지출하여 반개월간 무단 유용하였다.

◇(제 3반) 김 경 인 의원 보고

- 제3반에서 10개동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개별적 보고는 생략하려 하오며 대체적으로 일괄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동 공통적으로 동의 집무상태가

형식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환언하여 말씀드리면 문서 건명부와 문서 배부의 중복 및 출장 명령부와 외출부의 겸용 등 시정에 연구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회계 장부와 배급사무 처리 등 각 동마다 각양각색이었다. 시 당국에서는 년1회 정도의 강습회를 개최하여 이를 시정 통일시킬 방안을 강구하여 사무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변방동의 재정보조를 급속히 실시하여 안심하고 집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느껴졌다.

동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동정세의 징수부진으로 동 직원의 식생활에도 급급한 형편으로 담임사무에 성실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아진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동 운영제도를 시정하도록 연구와 검토 있을 것을 절실히 요청되었다.

◇김 일 섭 의원

- 보충보고가 있었음

◇김 삼 성 의장

- 산회선언 하오 1시 2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2월 18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임 석 희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77회 제3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17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17일 하오 3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 전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민원서류 접수 상황보고

호적관계 탄원서

농지분배관계

나. 부의안건

1. 시정감사 결과보고

2. 신년도 예산 평성방침 설명

3. 대 행정부 질의응답

4. 목포시 오물 소제수수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단기 4291년 도내 일시 차입의 건

6.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보증 조례 중 개정 조례안

7.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8. 신설 국민학교 부지선정의 건

※ 호적관계 탄원서

박찬대 서기 문택호씨로 부터 제출된 탄원서 낭독

◇김 상 대 의원

- 소개의원으로서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찬조발언에 이어 골자가 종전대로 환원하여 달라는 것이니 우리 의회의 결의로서 본 건 탄원인의 요구대로 조속한 시일 내 환원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성 균 의원

- 탄원서의 내용이 한 시민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이나 집행부로서도 본 건 처리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보아지니 이에 대한 당무자의 해명을 듣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호적 병무과장 정 태 로

- 거 11월 2일 오전 10시경 문영호씨택 종사원이 내시하여 법원측의 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완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속결한 것이며 탄원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독직행위 등은 사실무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계서가 법원에 회부되었으니 법원측의 사무적인 지시를 대기중

에 있으니 이에 따라 선처하려 합니다.

◇김 상 대 의원

- 본 계서를 접수할 당시 주무과장이 재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주무자가 처결한 이유 및 이 사유를 경솔히 취급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담당자의 인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처결절차에 대한 원칙문제를 결정한 다음 토론하는 것이 가할 것 같다.

◇김 상 대 의원

- 본 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토의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남 진 의원

- 김상대 의원의 발언과 같이 본 건 시장에게 건의한다면 시장으로서는 어떠한 법적근거로써 처결할 것인가

◇정 응 표 의원

- 본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재판에 간섭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강 영 락 의원

- 본 건은 대법원에까지 제소한 사안으로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왈가왈부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아지니 주무과장의 증언대로 법원측의 지시를 기대해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상 대 의원

- 청원내용의 골자가 시청의 잘못으로 일개시민이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하도록 건의하자는 것이다.



◇정 태로 호적 병무과장

- 김상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의 호적리는 시장인 것입니다. 이호적리의 보조자인 호적주무자가 문말인 관수책임자인 바 과장이 재청중이라 하더라도 호적주무자 전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수 책임자인 바 과장의 재청중이라 하더라도 호적주무자가 전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직원은 상사와 상의하여 병사계로 천지(이동)시켰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관계법령이 용허하는 범위내에서 단시일 내 원상대로 환원하도록 집행부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가결

※ 농지분배관계 청원관계로 청원의 건

박찬대 서기 청원서 낭독

◇김 남 진 의원

- 소개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이 있었고  
본 청원서를 청원인들이 도당국에 제출하였던 바 시에 제출하라고 각하 되었습다합니다. 본 건 공정한 입장에서 처결할 수 있도록 당 의회에 서3인정도의 조사위원을 구성 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김 삼 성 의장

- 본 건 산업분과 위원회 소관이니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

※ 시정감사 결과 보고(후반기)

교육청 관계

◇김 남 진 의원 보고

- 교육청 사무감사보고를 하기 전에 감사에 당하였던 심경을 피력하자면 교

육청이라 함은 교육청을 움직이기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정도이었으며 민폐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감사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특별부과를 안하였더라면 교육청 운영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감사 당시 시재 500만 환이 남아 있었는데 인건비 등 부채가 1,800만 환에 달하였던 것이다. 90년도 예산통과시 의회석상에서 서무과장은 과년도 수입 700만 환을 징수 할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그 10분지 1도 미달된 특부 30만 환과 호부 20만 환밖에 안받아 드렸으니 아연 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경리사무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된 경리사무를 감행하였으며 일견 교육청은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서무과장은 서무과장대로 직원도 역시 각자 대로 춤을 추고 있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미진된 것도 허다하였다. 직원의 신원보증서미비 교육세 징수예증 및 보조금 지령서등의 행방처를 모르고 있는가 하면 교육 공무원 양곡을 창고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부족량이 생기면 당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들이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는 등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경쟁입찰 관계 서류의 선후가 바뀌어 졌는가 하면 중앙 국민학교 신축 보조자재를 현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었다.

이 외 상세한 숫자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속하고 상당한 의혹이 개재되었음을 지적하여 이상으로 마치려 한다.

#### ◇김 경 인 의원

- 현금특부시재로써 1,800만 환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500만 환 시재에 1,800만 환의 부채가 있었다. 신설교부지 책정문제로 논의대상이 안되지 않겠는가

#### ◇김 성 균 의원 보충보고

- 박 교육감이 취임한지 6개월이 경과한 현금 교육청 내에는 직원간 신파와 구파가 대립되어 인화가 여의치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육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아동에 무상배부하게 될 교과서는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말았다.

둘째, 엄동기의 아동들에 대한 온수 급여등도 급선무 있었다.

그리고 각 국민학교 사무감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니,

(1) 산정국민학교는 집웅이 세고 (2) 중앙국민학교는 책상이 부족하며 (3) 유달국민학교는 일부교사의 지주도괴의 우려가 있었고 (4) 서부국민학교는 건축자재가 조잡하여 천정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아동들이 위험성이 농후하였다.

#### ◇김 삼 성 의장

- 제9회 시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이 있었음(내용 초안참조)

※ 신년도 예산 편성 방침설명

장건식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항목별 편성방침 설명이 있었음

※ 대행정부 질의 응답

#### ◇김 성 균 의원 질의

1. 삼학도 공사와 갓바위 매립공사는 91년도 말까지는 어느 선까지 진척할 예정인가

2. 항만 시설의 한계 및 공회당 건축의 구상은 여하

3. 예산면에 나타난 것을 검토하건데 세입면에 너무 소홀히 취급한데 반하여 세출면을 극도로 억제한 감이 있다. 즉 (가)시립병원의 왕진료가 너무 적으며 (나) 2호시장의 공지사용료는 하차 계상 하였고 (다) 시장 포탈료 산출 근거와 도장수입에 밀살방지등을 여하히 구상하고 있는가 세출면에 있어서

4. (가) 수로인부의 설치 이유 (나) 가로등의 증치의사는 없는가 (다) 항동시장의 수선내역은 무엇인가

#### ◇정 응 표 의원 질의

- 신년도 예산안을 일목하건대 너무도 가공적이 많고 상수도 공사를 빙자하여 무난히 통과되도록 획책한 요령위주의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년도의 예산과 비교하여 극도로 감액시킨 것은 실행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추경예산을 몇 번이고 계상 할 것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동정 운영면에 있어서 현금의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동정제를 시에서 직접 징수 경리함으로써 민선동장이라하여 정치에만 몰두하고 상부의 지시에 순응 않는 동장에게 재정보조로써 견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것이고 변방동의 기준액 초과부과에 반하여 중앙동의 기준액 미만 부과의 모순성도 제거되리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여하히 구상하고 있는가

◇김 경 인 의원 질의

- 정응표 의원의 발언한 바와 같이 신년도 예산안은 확고한 정착성이 없다는 것만은 역연한 사실이다.

첫째, 사무비 특별판공비와 공보비 특별 판공비가 동액이라 함은 실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이며.

둘째, 재정부족보조는 집행부 측에서 노력만 하면 증배 될텐데 이를 사전에 절충하여 본 사실이 있는가

셋째, 지방주민이 직접혜택을 받게되는 음료수, 도로, 하수구 진개처분 등이라 할진데 독립채산주의를 수립하였다하나 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보아진다.

넷째, 징세비에 수입은 감액인데 지출이 증액되었음은 이해 난이다.

다섯째, 매년 춘 추계 2회에 공하여 실시하는 도로 포장에 있어서 관내 유달동에서는 7만여환을 동민으로부터 징수하여 부설하였다한다. 이에 대한 집행당국의 의견 차후 알려 주기 바란다.

끝으로 동 운영문제에 있어서 현금까지의 복잡한 사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는 시대로 동과 교육청 등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각종세금 등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직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될 줄 믿는다.

◇김 창 희 의원 질의

(1) 사무비 특별판공비가 근소하여 우려된다.

(2) 삼학도 공사가 완료 후에 조치로서 동명동 200여 세대에 대한 조치가 예산면에 계상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여하

- (3) 공설운동장과 해수욕장의 설치안은 구상하여 보았는가
- (4) 도로포장에 있어 해안동과 역전으로부터 보광동에 이르는 선을 계산 안한 이유 여하
- (5) 국민반 운영비의 대폭 삭감 이유 여하
- (6) 4291년도는 우리 목포의 개항 61주년 기념년인데 이의 기념사업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는가
- (7) 용당 도선장 유류창고를 건축할 의사는 없는가

◇김 남 진 의원 질의

- 방역대책이 수립 안되었음은 유감이다. 방역비 계상은 가용적인가 실적인가 답변을 요망한다.

◇강 영 낙 의원 질의

-신년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긴축예산이라 하겠으나 일견 위험천만인 예산이기도 함

- (1) 이사문제에 있어 직원을 감원할 의사는 없는가
- (2) 상수도 확장공사사무의 유기적인 연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에 출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3) 오물 소제수수료를 없애고 분노대로 대 할 수 없는가
- (4) 동정 운영면에 있어 작은 시청같은 감을 주는 복잡한 사무량을 감량하여 형식주의를 떠나고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이끌 의사는 없는가

◇김 상 대 의원 질의

- 예산안은 소정법규 의거 의회에서 감액은 할 수 있으나 증액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분대, 오물 소제수수료, 간이 도장비수입등 상당액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다. 91년도 예산안은 심의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니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일응 행정부에 반송토록 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김 경 인 의원

- 찬성발언

◇명 남 철 의원

- 찬성발언

◇강 영 락 의원

-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청취않고 비트한다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보아 반대한다.

◇김 창 희 의원

- 1시간동안 휴회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삼 성 의장

- 속개선언 하오 3시 정각

◇김 삼 성 의장

- 산회선언 하오 3시 2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2월 19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성 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77회 제4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21일 상오 11시 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21일 하오 2시 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정응표, 전철수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부의안건

제3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김 상 태 의원

- 거12월 16일자 개최 제2차 회의시 시정감사 결과 보고회에서 이정권 의원이 보고한 사회과 군경원호금 부정사건에 대하여 시청간부 등이 집합하여 이 의원은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처사운운하고 비난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 점을 해명하여 주지 않으면

야당계의원 6명은 총퇴장하려한다.

◇김 삼 성 의장

- 제 의원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으나 냉정한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기 요망하는 바이다.

◇김 성 균 의원

- 전반 제3차 회의시 의장은 법정시간내의 의사진행 도중 하등의 이유 없이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하였다. 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 조문에는 해당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 찬성발언

◇김 삼 성 의장

- 산회이유를 추궁하면 난처하나, 결론은 의결부와 집행부가 혼연일체하여 부하된 사명완수에 유종의 미를 거양하자는 것이었으며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출장중인 시장님에 귀임을 기다려 토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산회를 선포한 것이니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 상 태 의원

- 사회과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 각 과장 등이 각 언론계를 심방하여 신문보도 금지 등을 종용하였다는데 그 진상여부

◇하 시장

-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여러가지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상태 의원 질문의 야당계 의원이 행정부를 괴롭힌다는 말을 우리 간부들이 하였다하나 이는 여불성설입니다. 본인의 성질도 여야 의원을 차별대우도 안하려니와 그날 시장실에 간부들이 집합하여 시정감사 보고에 대한 전말처리를 한 것뿐이고 그 외의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외 서울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생략



※ 각 의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김성균 의원 질문의 세출을 국도로 억제하고 세입면을 너무 소홀히 하였는데 대하여는 세입면은 과거의 실적을 조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이에 수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특 예산은 제위께서 숙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이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장 질의의 세입면을 무시하였다 함은 전항과 동일하오며 동정세의 시직접부과 건에 대하여 종전의 방법을 바꾸게 된다면 1,000만 환의 시비보조가 소요되는 것임으로 이는 도저히 기대난 인고로 각 동 2명씩을 감원하여야 됩니다. 본인의 의견입니다 마는 상수도공사가 완료되도록까지 현상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경 인 의원 질문

- 예산면에 정착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세출의 소비방면은 절약에 절약을 목표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비의 판공비는 주특예산에도 응분의 액을 계상하여 두었으니 안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보조의 도비보조는 근소한 액입니다. 동 직원과 시 직원간의 인사교류, 도사무간 소화, 동세금 위임징수 등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김 창 희 의원 질문

- 판공비의 근소액 계상은 절약하여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반 운영비 대폭삭감이유는 정신면에 치중하려한 것입니다. 개항 61년 기념행사비는 차후 추경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강 영 락 의원 질문

- 시 직원 감 의원문제는 현원가지고도 부족한 감이 잇는 것입니다.

◇김 연 수 산업과장 답변

- 김상대 의원 질문의 도장 사용료 과소 이유는 90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계

상한 것이나, 요청하신다면 증액할 용의도 있는 것입니다. 가축시장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9만 환의 증액을 본 것으로 이것도 위험성 있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 사용료 미징분은 오는 년도 폐쇄기까지 전력을 경주하여 완정할 방침입니다. 김성운 의원 질문의 2호시장 포탈료 근거는 년도 실적을 참작한 것이고 항동시장 개수비는 우인도와 하수구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창희 의원 질문의 동명동 어시장 시직영 여부 문제는 도로를 되어 있어 난망인 것입니다.

◇김 상 태 의원 질문

- 가축시장을 타인에게 대여할 의사는 없는가

◇산업과장 답변

-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박 규 성 사회과장 답변

- 김성균 의원 질문의 시립병원 수입의 근소는 그 근무시간이 관청과 같기 때문이나 신년도부터는 별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돈(돼지)밀살 방지는 사무적인 미비도 있겠으나, 이후 산업과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최선을 다 하려합니다. 김창희 의원 질문의 해수욕장 설치 문제는 지방부담이 500만원 가량을 필요한 것이니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김남진 의원 질문 연막소독은 시장님께서 도미시 하경이 계신 것 이였으나 도당국으로부터의 배급지연으로 불여의 하였으나 명년도에는 철저를 기하려 합니다.

김상대 의원 질문의 인분대 징수문제는 책임 있는 직원의 배치가 곤란하여 유감이였으나, 수시 감시원을 파견 노력하려합니다.

◇이 춘 흠 건설과장 답변

- 김창희 의원 질문의 삼학도 공사 원성후의 동명동 철거문제는 중앙당국과 교섭하였던 결과 중앙 해무청 예산에 계상 되었다 합니다.

1호선 도로포장은 시멘트 포장을 할려고 중앙에 수배요청 중입니다.

동명동으로 부터 역전까지의 도로는 소액으로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아직 손

이 밑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선장 유류창고 문제는 상사에게 진언하여 적극 노력하려합니다. 강영락 의원 질문의 서울 출장소 설치문제는 연구도 하여보았으나 유명무실의 것이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바 서울에 종합 출장소가 있어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균 의원 질문의 수로원 설치이유는 도로의 소소한 구멍을 때우기 위한 조치인 것이며 가로등 증설은 금년 중에는 다소증설 할 계획입니다.

삼학도와 갓바위 간 매축공사는 현금중앙에서 설계 도중에 있으며 91년도말까지의 진척전망은 만톤급은 착항될 가능이라 합니다.

김경인 의원 질문의 유달동 찬조금문제는 시의 지시가 아닙니다.

#### ◇김 상 대 의원 질문

- 행정부 측의 답변은 의원들의 질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과년도의 실적운운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지 이해 난이다.

신년도 이 예산안은 일종의 인기전술에 불과한 것이다. 차라리 1개월 1개월 가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 경 인 의원 질문

- 민주주의사회의 발전은 자치 행정의 구현에 있을 것이다.

당 시에는 10여종에 달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독립채산주의를 실현 못하고 전체면으로 120여만 환의 시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인사배치에 본청위주를 삼고있는 감이 있는데 사업장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유기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진개 처리차는 지방자치 행정사업일진데 서로부터 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또 동정세 부과 문제에 대한 신안을 구상하여 본적은 없는가

#### ◇김 성 균 의원 질문

- 신년도 예산안은 창의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예산면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시립병원만 하더라도 이는 원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리한 이익을 도모함을 요구치 않으나 200여만 환의 손해를 보고 드려 시민에게는 어떠한 이익을 주었다고 보는가 그리고 용당도선은 1일 7회 왕복인데 1회 운항에 1500

환 수입이란 언어도단이다. 국민반 운영비 삭감은 이유가 안 된다. 광주시에 청소 사업회사가 있는 것을 알아 본 사실이 있는가

◇하 시장 답변

- 청소차 운영문제는 시와 절충하여 보았으나 불가능합니다.

오물소제수수료 문제는 신년도부터는 청부식으로 운영하여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한다는 안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나 관내의 사업장다운 사업장은 도선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고하여 보려합니다.

동정세 문제는 부동산 제도 구상하여 보았으나 경비문제이고 동과 시의 인사고류는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시립병원 운영에는 2대 약조건이 개재하고 있는 것이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과 약7할 가량은 목포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관계 등입니다.

앞으로 신설병원 일대혁신을 가하려 하고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중액면은 여러분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시립병원 그 반액을 의사생활 보장비로 공제하여도 약품 등을 부정 처분한 사실이 있으니 차라리 생보비를 안도아주고 전체예산 190만환의 배액인 380만 환을 계상토록 하기 바란다. 이러한 면에서 김상대 의원의 비트 동의에 찬성하는 바이다.

◇김 상 대 의원

- 100만환 수입이 있을 사업장에 50만환을 계상 한다면 그마만큼 열어 저하될 것 아닌가 본 의원의 주장한 바를 절대관철하고야 말겠다.

◇김 창 희 의원

- 의사당은 어느 때 신축할 것인가 불연이면 현상유지를 할 것인지 묻는다.

◇하 시장 답변

- 명남철 의원 질문의 시립병원 문제는 원장을 불러 물어보겠으며 의사당은 회의실을 정비하려합니다.

◇김 삼 성 의장

- 오전회의 휴회선언 하오 1시 정각

◇김 삼 성 의장

- 오후회의 속개선언 하오 1시 30분

◇김 삼 성 의장

- 신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비트 동의를 성립은 되었으나 집행부 측에서 원안 철회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남 진 의원

- 원안 환원시킨다는 것은 전체 의원의 의사인 것이니 시장님의 철회 의사라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장 건 식 총무과장

- 시장님을 대리하여 말씀 드립니다. 신년도 일반 예산안을 원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상대 의원 동의 자연 폐기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

◇김 경 인 의원

- 상임 위원회 회부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단기 4291년도내 일시차입의 건

◇김 상 태 의원

- 원안 통과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 보증 조례 개정안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 건

◇김 일 섭 의원

- 집행부 측이 제안 이유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기로 일응 보류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삼 성 의장

-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2시 정각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 함

단기 4290년 12월 22일

시의원 임석희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 77회 제 5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23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23일 하오 2시 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전원 출석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 7. 의사 일정

#### 가. 부의안건

전차 회의시와 동일함

### 8. 부의 사항

#### ◇박 찬 대 서기

- 제 4차 회의에서 원안 철회하였던 신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

#### ◇김 상 대 의원

- 도선장 사용료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일일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반응 안 된 이유 여하

#### ◇박 찬 대 서기

- 신년 초에 국가 재정 책정에 의한 중앙 해무청으로부터 3,000만환 가량의

기채를 받게되면 철선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에 수반한 도선 특별 회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 성 균 의원

- 시립병원 수입관계가 구태의연한 이유 여하

◇박 규 성 사회과장

- 대체적 윤곽은 격리병사 신축자재보조와 현금 보조 및 현 시립병원, 대성 병원에 매각대금 합하여 시립병원 신축을 구상하고 목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노동쟁의 조정비 20,000환을 계상하였음은 노동쟁의 극심한 당 시의 형편으로 한 건의 조사비에도 부족한 액수를 계상하였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고로 말한다.

◇김 경 인 의원

- 의결부의 권한으로는 예산액의 증가는 못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부로부터 자진 철회하여 이와 같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니 질의를 종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재정,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 보증 조례 개정안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

◇차 영 균 서무과장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김 경 인 의원

- 상임위원회에 회부동의. 재청, 삼청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신설국민학교 부지 선정의 건

◇김 삼 성 의장

- 신년도 예산 안과 결부된 안건이니 일응 보류할 것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화력 발전소 유치운동에 대한 교섭 결과 보고가 있었음.

◇명 남 철 의원

- 교육 위원회 예산안 동특 수특 예산안의 제안 이유설명과 이에 대한 대집행부 질의 응답을 전개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에 이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단기 4290년 목포시 일반 회계 제 6회 추가 경정 예산안

◇임 석 희 의원

- 원안 통과 동의.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 춘 흠 건설과장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김 삼 성 의장

-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

※단기 4291년도 동정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장 건 식 총무과장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김 삼 성 의장

-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

※단기 4291년도 국민주택 특별 회계 예산안

※단기 4291년도 재건주택 특별 회계 예산안

◇박 규 성 사회과장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김 삼 성 의장

-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예산안

◇교육위원회 경리주무 - 제안 이유설명

◇김 경 인 의원

- 90년도 특별 부과금 징수액 1,600만원 중 1,000여만 원을 타에 지출하여놓고 91년도 특별금을 또 부과시킨다는 것은 의결부로서 시민에 대하여 변명책이 없다.

◇김 성 균 의원

- 과년도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및 관사료 계상 이유 여하

◇김 상 대 의원

- 시 일반 회계 예산안은 세출을 극도로 억제하여 곤란하드니 교육예산안은 그와 반대이다.

◇김 남 진 의원

- 과년도 수입을 너무 많이 계상하여 있으나 현 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60만 환 밖에 징수 못하였던 것이다. 이를 여하히 할 것인가

◇명 남 철 의원

- 보충 설명

◇김 남 진 의원

- 대체적인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으리라고 보아지나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예산안은 심의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본 예산안은 교육청 운영 예산인지 교육행정 운영 예산안인지 이해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김남진 의원의 발언에 찬의를 표한다.

◇이 정 권 의원

- 찬성발언

◇김 경 인 의원

- 찬성발언

◇정 응 표 의원

- 몇 의원을 계수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수 의원은 본 예산안을 비토 하자는데 찬성하고 있으나 집행부 측으로 하여도 어떠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아 지니 여하튼 제안자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 같다.

◇명 남 철 의원

- 정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1) 특별 부과금과 일반 경상비를 동일 구좌에 혼합 경리하는 것이 회계법 상 온당한 조치인가

(2) 유달 국민학교가 교사 건축을 여히히 할 것인가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1)과년도 수입은 오는 2월 말 년도 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 여러 의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시정할 바 선처하겠다.

(3) 전체 예산의 83%는 방비이며 13%는 그 외에 계상한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부와 호부의 동일 구좌사용에 있어서는 심계원의 심계관에게도 역시 단일경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부담력을 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금 당시의 교육적 견지로 보아 매년 10교실 이상을 증축 안하면 안될 형편에 놓였으니 특부를 부과 안 할 수 없는 형편으로써 심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자진 원안을 철회하여 세심 연구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려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 권 의원

- 김남진 의원의 발언을 동의로 살려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토)

◇강 영 락 의원

- 집행부 측의 자진 요구이오니 원안 철회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김 삼 성 의장

- 철회 중용

◇김 성 균 의원

-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안도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니 동일 철회함이 가할 것이다.

김성균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명남철, 김창희, 김경인, 김남진 의원 등이 찬부양론이 있었으나 정응표 의원의 발언으로 본 건은 전문위원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의 아량에 일임하자는 데 귀착을 보았음

※단기 4291년도 교육 위원회 특별 회계 예산안 원안 철회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10표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긴급 동의

- 작년도에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지방주민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당시회 회의 결의문 요청이 있으니 이의

결의문을 발송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창 희 의원 긴급 동의

- 저반 소방서 사열식에서 당시 소방서가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소방차 1대의 증배를 받는 바 있는데 대하여 감사문을 치안국장에 발송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 긴급 동의. 현금 국회에서는 김석우 의원의 동의로 군청 폐지 도 분할의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 하니 당 시의회의 결의로써 국회에 이에 대한 격려문을 발송할 것을 동의

◇강 영 락 의원

- 찬성 발언

◇김 삼 성 의장

- 김성균 의원의 동의를 만장일치 가결로 간주하고 격려문은 시기를 보아 제출토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삼 성 의장

- 산회를 선언. 하오 2시 정각

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 함

단기 4290년 12월 26일

시의원 강영락

시의원 조양순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 77회 제 6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28일 상오 10시 5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28일 하오 12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응균

5. 출석의원

재석 16명 중 출석의원 11명

결석 김삼성, 천철수, 박두순, 강영락, 김남진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 일정

가. 보고사항

각종안건 분위 심의 결과보고

나. 부의안건

(1)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각종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도 특별 회계

· 동정 특별 회계

· 국민주택 특별 회계

· 재건축주택 특별 회계

(3) 목포시 오물 소제수수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원 신원보증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6)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 (7)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의 건
- (8)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9) 제 9회 시정감사 결과 처리 전말보고

## 8. 토의 사항

※각종 안건 종합 심의 처리 결과보고

### ◇내무위원장 김 일 섭 의원 보고

- 문사위원회 소관 예산 : 인분 자유 흡취분을 경쟁입찰에 부 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 통과를 보았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 원안 통과를 보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 소방비 예산에 있어 세입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습니다. 세출은 과목존치 정도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조치 할 것을 전제로 대체로 원안 통과를 보았습니다.

수도 특별 회계 , 재건축택 특별 회계, 국민 주택 특별 회계, 오물 소제수수료 조례 개정안 등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 ◇내무위원회 김 경 인 의원 보충보고

- 동정 특별 회계 : 제 9회 시정감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결과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하여 현행제도 변경안을 숙의하였는 바 일용 예산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되 신년도부터는 백분지 백오십의 법정세율을 초과 안시키는 원칙 하 개정안을 제안할 것을 전제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제안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김 경 인 의원

- 소방비 예산 - 소방비로서 개당 20전씩 부과하여 400여만환을 우리 시민이 부담하여 소방사업에 보조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비 보조액을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바 아니나 이 시비 부담은 그 타당여부를 규명할 권리나 의미

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전반 분위에서 소방비 예산을 심의 도중 소방서장의 제안설명이 일부 모호하였을 뿐 아니라 소방 사령차의 존재 가치를 논의하였더니 소방서장은 사석 아닌 공식에서 「화」를 내며 위협적인 발언을 쓰며 퇴장하였음은 우리 전체 의원을 모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공식 회의석상에서 정식 사과하도록 통고문을 발송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이 있었다.

◇김 일 섭 의원

- 경향 각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 발표 할 것을 첨가한다.

◇김 상 대 의원

- 김경인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

◇명 남 철 의원

- 서장이 사과하고 안하는 것은 자기 처분일 것이다 옆져서 절 받는 격으로 통고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김 성 균 의원

- 찬성 발언

◇김 창 희 의원

- 일반시민에게 소방 예산을 예비비에 돌렸다는 경위 해명서를 공개하는 견지에서 지방신문에 발표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

◇사회 정 응 표 부의장

- 그 경위를 첨가 해명

◇김 상 태 의원

- 서장의 파면 결의를 요청할 것을 재개의. 재청 없음. 폐기  
김경인 의원 동의 철회  
김창희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태 의원

- 일반 회계 예산안 원안 통과 동의. 재청, 삼청

◇김 상 대 의원

- 관별 축조 심의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개의 표결결과 재석 11명 중 가 3표 부결  
동의 표결결과 재석 11명 중 가 6표 가결  
김창희 의원 퇴장 재석의원 10명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 회계 예산안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 회계 예산안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 회계 예산안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재건축주택 특별 회계 예산안

◇김 성 균 의원

- 4건 공히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 재청, 삼청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목포시 오물 소제수수료 조례 중 개정안

◇김 일 섭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 일 섭 의원

- 본 건 전문분과 위원회에 회부 동의. 재청, 삼청

◇김 경 인 의원

-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계수적인 치밀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차 영 균 서무과장

- 90년도 특별 부과금 통과 시 본인이 행한 공약을 이행 못한 것은 시민의 경제력도 있겠지만 본인의 사무태만으로 자인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 통과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 1,800만환을 년도 폐쇄기까지는 기필 확보하겠으며 만약 차공약을 위반하게 되면 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고 있으며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보증 조례 개정안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명 남 철 의원

- 양건공히 문사위에서 심의를 못하였으니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의 건

◇김 경 인 의원

- 문사위에 회부 동의.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 9회 시정감사 결과 처리 전말보고

◇하 시장

- 시정쇄신과 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여일에 공한 장기일에 세밀한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 이올시다. 제 의원이 지적하신 제반안전에 대하여는 소관 각 과장을 통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강영탁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채소화 성적에 대하여는 총체적으로 2할 가량밖에 안되었으나 오는 2월말까지는 전액 소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실인 압날에 대하여는 차후 주의하겠으며 회계 사무의 찬조금 지출억제에도 유의하겠습니다.

- 김성균 의원 질문의

(1) 용당동 직원의 봉급 미지불분에 대하여는 목하 법인 동정세를 징수중에 있으니 년도 폐쇄기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보아지며 산업계 직원 중치문제는 시에서 지시하여 적임자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직원 인사 발령에 동장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상사와 상의하여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3) 시 동간 인사 교류문제는 현재는 어려운 일이나 시기를 보아 조치하겠습니다.

(4) 동회계 직원 실무 강습도 신년도부터는 실시하겠습니다.

- 김상대 의원 말씀의

호남동 공채 소화 등 잘 되었다 하시나 이후, 배가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순 의원 질문의 동명동 회계사무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 담당자를 파견 정비 중에 있습니다.

- 김상태 의원 질문의 남교동 동정세 유용액과 항목 없는 예산 지출 등 지시하여 추완시키겠습니다.

- 김경인 의원께서 지적하신 동사무간 소화 문제에 대하여는 계통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리되었으나 차후 유의하여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섭 의원이 말씀하신 동정세 철저 징수에 대하여도 관계 직원을 엄독 소기성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연 수 산업과장 답변

- 강영낙 의원께서 말씀하신

(1) 도장창고 처분 및 수선안에 대하여는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선처하겠으며

(2) 오물처리에 있어서는 지난 25일부터 재거중에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각 시장 사용료 미납분에 대하여는 극력 주력하

여 12월말과 2월말의 2기로 나누어 완납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상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1) 농림계 서류정비 불량에 대하여는 차후 주의하겠습니다 즉시 정비하여두었습니다.

(2) 간이도장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 예산집행을 하려합니다.

- 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1) 밀살방지로 인한 세입확보책은 사회과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선처하겠습니다.

(2) 죽교동 시장 정리문제는 신중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남교동 2호시장 수선은 신년도에 실행하겠습니다

(4) 연동시장 노점정리는 하절기에 선처하려합니다.

#### ◇박 규 성 사회과장 답변

- 김상대 의원이 지적하신 보건계 소독약 수불대장이 없다는 것은 그후 발견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약품 잔량과 배급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간혹 약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있어 그리된 것입니다.

이정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경원호금 부정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관련된 직원과 내용을 상사에 복명하고 있으며 그 진상을 엄밀히 내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 춘 흠 건설과장 답변

- 김상대 의원이 말씀하신

(1) 도시계 문서처리 미비점은 즉시정비 하였습니다.

(2) 측량 수수료 인상문제는 타 시에 조회하여 있는 중이니 이를 참고로 조치하겠습니다.

(3) 수도사용료 미수액은 계원을 총동원하여 그 완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 과내 인화문제에도 원만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휴관적치장 감시인 배치 문제는 휴관회사측에 말하여 그 보관책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김성균 의원이 지적하신

(1) 공동하양장 수입에 있어서는 차후 가일층 유의하겠습니다

(2) 수도 누수 방지책도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3) 확장계 인화문제도 유의하고 있으며

(4) 상수도 공사설계 의뢰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공사설계를 단 시일 내에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되었으며 확실성과 정확성 있는 김해림씨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 김상태 의원이 말씀하신 도선장 수입유용의 건은 잘못되었으면 차후 주의하겠습니다.

- 김창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유류수불부와 현품잔량 차이점에 대하여도 주의를 시켰으며 차후 관계직원을 엄독하겠습니다.

- 강영락 의원이 말씀하신 가로수 식목에 대하여는 신년부터서는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그 생육에 최선을 다하려합니다.

####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 김남진 의원이 지적하신

(1) 청내 직원의 정신통일문제에 차후 적극 치중하여 시정하려합니다.

(2) 재정면의 불충분한 점은 이번 심계원감사를 계기로하여 의법추완하여 두었습니다.

(3) 문서가 없다는 것도 추완하였습니다.

- 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1) 청내의 친구파 대립문제인데, 그러한 분자를 조속한 시일 내 적발하여 조치하려합니다.

(2) 각 학교 아동에 대한 온수 급수건도 각 교장에게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3) 각 학교 보수문제도 신년도 예산에서 실시하려합니다.

이외 미비된 교육행정 전반에 공하여 쇄신에 경주하겠습니다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균 의원

- 동정 특별회계 운영에 한말 드리고자 한 것은 각 동마다 재정상태가 지극히 궁핍한 실정에 놓여있으며 자칫하면 수년전의 구태환원을 미면할 지경인 것이다.

이후 관계당국의 선처 있기를 참고로 발언한다.

◇김 상 대 의원

- 동정운영면에 민선동장이 취임이후는 후퇴일로를 걸고 있는 것이다.  
김성균 의원의 발언과 같이 가일층 선도함을 촉구한다

◇사회 정 응 표 부의장

- 산회선언. 하오 12시 50분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임함

단기 4290년 12월 30일

시의원 조양순

시의원 김일섭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77회 제7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2월 31일 상오 11시 1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2월 31일 하오 12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채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박두순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 가. 보고사항  
  
각 분과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 나. 부의안건
    - (1) 목포시 교육위원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4290년도)
    -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4)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5) 신설국민학교 부지선정의 건

## 8. 토의사항

※ 각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결과 보고

### ◇내무위원장 김 일 섭

- 문교사회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에 대한 내무위 심의사항 보고가 있었음

※ 단기 4290년도 제3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김 상 대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재석 15명중 만장일치 가결

### ◇이 정 권 의원

- 의사일정 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 심의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

※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 ◇김 경 인 의원

- 양건공이 원안 무수정 통과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예산안

### ◇김 성 균 의원



- 세출·세입순으로 관별 축조심의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세출 관별 축조심의 결과 이의 없음  
이정권 의원 퇴장 14명

※ 세입 관별 축조심의 결과 이의 없음

◇김 삼 성 의장

- 세입세출 공히 2독회는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제안코져한 바는 과년도 수입 800만환을 완징할 것이 조건부이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 상 태 의원

- 본 건 상임위원회 심의시 문사위에서도 특부 개당 45전으로 결정하여 내무위로 회부하였는데 내무위에서 독단적으로 80전으로 결정 상정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조 양 순 의원

- 차 서무과장은 과반 본회의석상에서 과년도 수입 1,800만 환을 완징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내무위에서 변동시켰다는 것은 이해키 곤란하다.

◇김 삼 성 의장

- 김상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사위에서 특부 개당 45전으로 결정하여 내무위로 회부당시 내무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용의가 있으면 문사위에서도 찬성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으며 80전으로 한 것은 현금의 당시 교육행정 운영상 부득이한 조치인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삼 성 의장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선언  
김상태 의원 퇴장 13명 장내소란

◇김 경 인 의원

- 거액의 금액을 시민들로 징수하여 목적사업에 활용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금반 본 건 예산안을 상정시켜놓고 월가월부 논의하다가 원안통과는 보았으나 교육감은 이러한 기회를 거울삼아 금년도 폐쇄기까지는 여하한 일이라도 신설교 부지 책정을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찬성발언

◇김 상 대 의원

- 특부와 호부구좌를 동일 구좌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특부는 신영사업 외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유용 않하도록 유의하여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학교를 신축하자는데 본 직원이나 문사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문사위에서 심의당시 45전으로 결정되었으나 본 의원의 제안으로 70전까지 하자는 제2안을 내놓았던 것인데 갑자기 80전으로 인상시킨 이유를 모르겠다.

◇김 삼 성 의장 :

- 내무위에서도 45전과 70전의 양론을 나누고 장시간 논의하였는데 학교를 신축하려면 45전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70전을 부과한다면 2교실밖에 안되는 데 반하여 80전을 부과하면 3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전을 인상시킨 것이며 이에 대하여 문사 위원장의 찬동언질도 받았던 것입니다.

◇김 창 희 의원

- 교육청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철저 징수 책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

※ 신설 국민학교 부지선정의 건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방금의 의회공기로 보아서는 심의키 곤란한 형편으로 보아지니 차기 회의에 상정기로 하고 보류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삼 성 의장

- 폐회선언 하오 12시 10분 현재

※곧이어 제77회 정기 의회 폐회식이 있었음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임함

단기 4290년 12월 31일

시의원 김일섭

시의원 임석희

작성자 서기 주도식